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2  
<http://sri.kostat.go.kr>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 코로나19 시기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취업 실태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적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이나 중도탈락율은 코로나19로 인해 뚜렷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신입생이나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휴학생 비율과 중도탈락율이 증가하였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수는 뚜렷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코로나19가 대졸자 취업의 양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은 단기에 그쳤다. 코로나19가 고용률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전문대보다는 일반대, 여성보다는 남성, 이공계열보다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 코로나19가 대졸자 취업의 질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았다. 취업의 질적 측면의 악화는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인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 임금근로자 중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의 비중이 2020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비대면’이라는 말이 일상용어가 되었으며, 전면 비대

면 강의를 실시하는 등 대학의 교육 현상이 크게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그 여파 등으로 경제활동도 상당히 위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낳았으며,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취업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코로나19가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휴학, 중도탈락, 졸업유예 문제 등)과 취업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가용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 코로나19와 휴학, 중도탈락 및 졸업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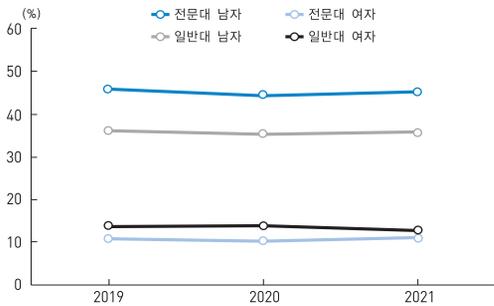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대학 생활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학생들의 휴학 비율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의 대학 생활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신입생들의 경우 이러한 부적응 문제가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재적학생 수 대비 휴학생 수로 측정되는 휴학생 비율이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소폭이나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IV-13). 일반대 남학생의 경우 재적학생 대비 휴학생의 비율(4월



1일 기준)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6.0%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 35.7%로, 일반대 여학생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중 13.7%에서 12.7%로 약간 하락하였다. 전문대의 경우 남학생은 45.8%에서 45.2%로, 여학생은 10.7%에서 11.0%로 약간의 등락을 보이거나 큰 변화는 없다.

[그림 IV-13] 일반대와 전문대의 휴학생 비율, 2019-2021



주: 1) 휴학생 비율=(휴학생 수÷재적학생 수)×100.  
 2) 교육대학교와 산업대학교는 일반대학, 기능대학교는 전문대학으로 포함됨.  
 3) 재적학생 수에는 정원내외, 폐교, 폐과의 잔류 재적학생이 모두 포함됨.  
 4) 자료 기준일은 당해연도 4월 1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각 연도.

또한 <표 IV-3>의 설립유형별이나 대학소재지별, 전공계열별로 나누어 보더라도 전문대의 약계열을 제외하고는 휴학생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IV-14]의 학년별로 보면, 코로나19 시기에 입학한 1학년생의 휴학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입학생에 비해 약간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일반대의 경우 전문대에 비해 증가 정도가 보다 뚜렷하다. 코로나19 이전에 대학 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휴

학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시기의 신입생들의 경우, 대학 생활 부적응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IV-3> 대학 특성별 휴학생 비율,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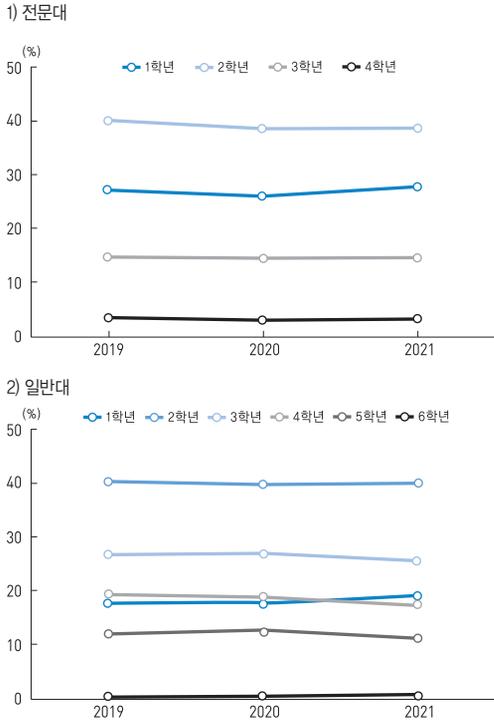
	전문대			일반대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설립유형						
국공립	35.8	34.9	35.2	26.7	26.0	26.0
사립	31.3	30.0	30.5	26.6	26.3	25.7
소재지						
수도권	31.3	30.1	31.4	25.3	25.5	24.7
비수도권	31.7	30.5	30.3	27.4	26.7	26.5
전공계열						
인문	43.5	42.5	43.4	31.8	31.2	31.3
사회	12.2	12.1	12.1	15.0	14.5	14.5
교육	29.2	27.7	28.9	27.8	27.6	26.4
자연	30.0	28.9	29.6	25.1	24.8	24.3
공학	17.7	16.9	16.9	12.1	11.7	11.6
의약	30.5	27.3	32.0	24.8	24.6	24.0
예체능	34.9	33.3	33.7	27.3	26.8	26.9

주: 1) 휴학생 비율=(휴학생 수÷재적학생 수)×100.  
 2) 교육대학교와 산업대학교는 일반대학, 기능대학교는 전문대학으로 포함됨.  
 3) 재적학생 수에는 정원내외, 폐교, 폐과의 잔류 재적학생이 모두 포함됨.  
 4) 자료 기준일은 당해연도 4월 1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각 연도.

한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에서의 휴학생 비율이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많게는 2.6%p, 적게는 1.7%p 증가했다(그림 IV-15).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릴 기회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반수 준비 등을 위한 휴학생들이 SKY대학을 중심으로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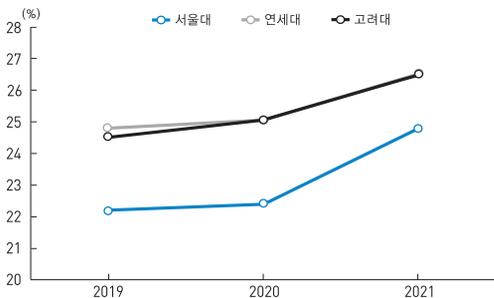


[그림 IV-14] 학년별 휴학생 비율, 2019-2021



주: 1) 휴학생 비율=(휴학생 수÷재적학생 수)×100.  
 2) 교육대학교와 산업대학은 일반대학, 기능대학은 전문대학으로 포함됨.  
 3) 재적학생 수에는 정원내외, 폐교, 폐과의 잔류 재적학생이 모두 포함됨.  
 4) 자료 기준일은 당해연도 4월 1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chedi.re.kr>),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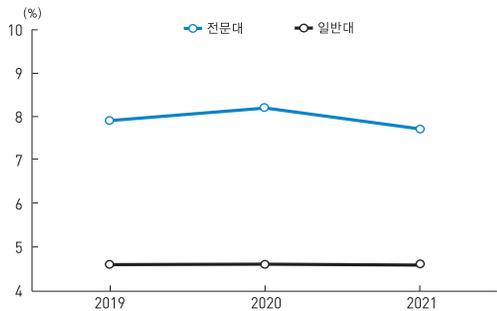
[그림 IV-15] SKY 대학의 휴학생 비율, 2019-2021



주: 1) 휴학생 비율=(휴학생 수÷재적학생 수)×100.  
 2) 재적학생 수에는 정원내외 학생이 모두 포함됨.  
 3) 자료 기준일은 당해연도 4월 1일임.  
 출처: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각 연도.

[그림 IV-16]의 중도탈락률은 일반대의 경우 코로나19와 무관하게 큰 변화가 없었고, 전문대의 경우에도 소폭의 등락은 있었지만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도탈락률이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IV-16] 일반대와 전문대의 중도탈락률,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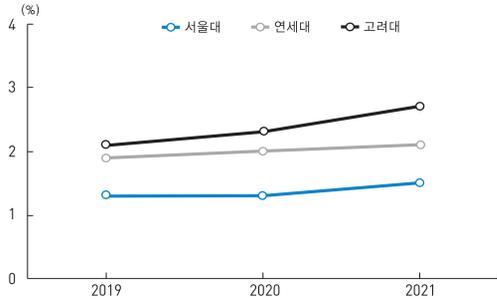


주: 1) 중도탈락률=(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까지의 중도탈락생 수÷전년도 4월 기준 재적학생 수)×100.  
 2) 교육대학교와 산업대학은 일반대학, 기능대학은 전문대학으로 포함됨.  
 3) 재적학생 수에는 정원내외, 폐교, 폐과의 잔류 재적학생이 모두 포함됨.  
 출처: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각 연도.

일반대의 경우 중도탈락률의 증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에서의 중도탈락률도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IV-17).

반면 전문대의 경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탈락률의 증가가 확인된다. 성적 분포상 양극을 중심으로 중도탈락률이 확대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중도탈락률을 전공별로 보면, 전문대의 경우 의약계열을 중심으로 그 비율이 소폭 늘고 있고, 일반대의 경우 인문계열과 교육계열에서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있다(표 IV-4).

[그림 IV-17] SKY 대학의 중도탈락률, 2019-2021



주: 1) 중도탈락률=(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까지의 중도탈락생 수÷전년도 4월 기준 재적학생 수)×100.  
 2) 재적학생 수에는 정원내외 학생이 모두 포함됨.  
 출처: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각 연도.

<표 IV-4> 대학 특성별 중도탈락률,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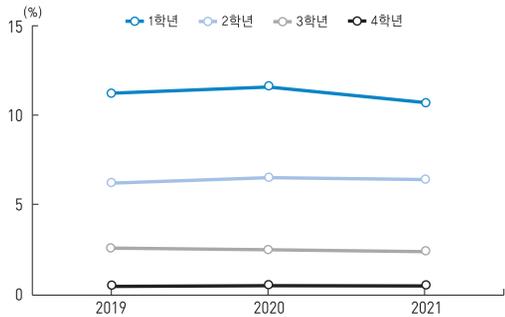
	전문대			일반대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설립유형						
국공립	9.6	8.9	9.1	4.0	4.0	4.0
사립	7.8	8.1	7.6	4.8	4.8	4.8
소재지						
수도권	7.6	7.3	6.8	3.3	3.5	3.6
비수도권	8.1	8.8	8.4	5.4	5.4	5.3
전공계열						
인문	9.8	10.3	9.2	4.6	4.7	5.0
사회	9.2	9.7	9.0	4.8	4.9	4.8
교육	6.7	6.5	6.4	2.6	2.7	3.0
자연	7.7	8.4	7.7	5.0	5.0	5.1
공학	8.5	8.7	8.4	4.6	4.6	4.6
의약	4.3	4.4	4.5	2.5	2.5	2.4
예체능	9.6	10.0	8.8	5.7	5.8	5.5

주: 1) 중도탈락률=(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까지의 중도탈락생 수÷전년도 4월 기준 재적학생 수)×100.  
 2) 교육대학교와 산업대학교는 일반대학, 기능대학교는 전문대학으로 포함됨.  
 3) 재적학생 수에는 정원내외, 폐교, 폐과의 잔류 재적학생이 모두 포함됨.  
 출처: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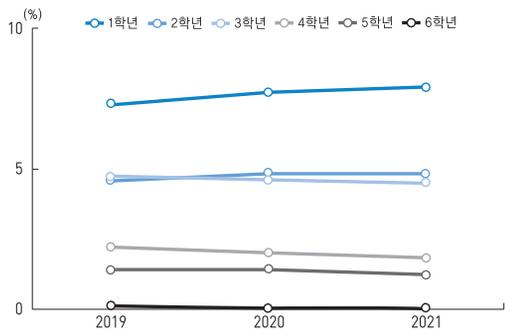
[그림 IV-18]의 학년별로 보면, 코로나19 시기에 입학한 대학 1학년 신입생의 중도탈락률이 소폭 증가했다. 이는 특히 일반대의 경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코로나19 이전에 대학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코로나19 시기의 대학 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림 IV-18] 학년별 중도탈락률, 2019-2021

1) 전문대



2) 일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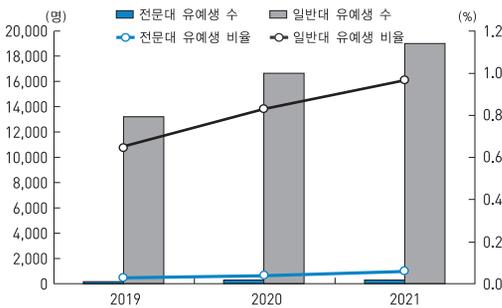
주: 1) 중도탈락률=(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까지의 중도탈락생 수÷전년도 4월 기준 재적학생 수)×100.  
 2) 교육대학교와 산업대학교는 일반대학, 기능대학교는 전문대학으로 포함됨.  
 3) 재적학생 수에는 정원내외, 폐교, 폐과의 잔류 재적학생이 모두 포함됨.  
 출처: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각 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 휴학생이나 중도탈락생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반면, 학사학위취득 유예생<sup>1)</sup>은 뚜렷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IV-19). 전문대의 경우 2019년 202명에서 2021년에는 34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일반대의 경우에도 동기간 중 1만 3,241명에서 1만 9,016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재적학생 대비 비율도 증가하였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일반대를 불문하고, 사립대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그 수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공별로는 전문대 자연계열과 일반대 의약계열을 제외하고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수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IV-19] 일반대와 전문대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변화, 2019-2021



주: 1)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비율은 재적학생 대비 수치임  
 2) 교육대학교와 산업대학은 일반대학, 기능대학은 전문대학으로 포함됨  
 3) 재적학생 수에는 정내외 폐교, 폐과의 잔류 재적학생이 모두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각 연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5〉에서 설립유형과 소재지별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증가 상황을 보면, 전문대와

〈표 IV-5〉 대학 특성별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수, 2019-2021 (명)

설립유형	전문대			일반대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설립유형						
국공립	3	3	6	3,117	3,102	3,290
사립	199	260	334	10,124	13,598	15,726
소재지						
수도권	32	158	189	6,340	9,902	11,588
비수도권	170	105	151	6,901	6,798	7,428
전공계열						
인문	1	10	26	1,770	2,351	2,709
사회	53	63	79	4,501	5,853	6,957
교육	41	51	58	465	529	512
자연	28	14	12	1,419	1,676	1,949
공학	51	96	104	3,973	4,709	5,167
의약	15	14	22	208	112	194
예체능	13	15	39	905	1,470	1,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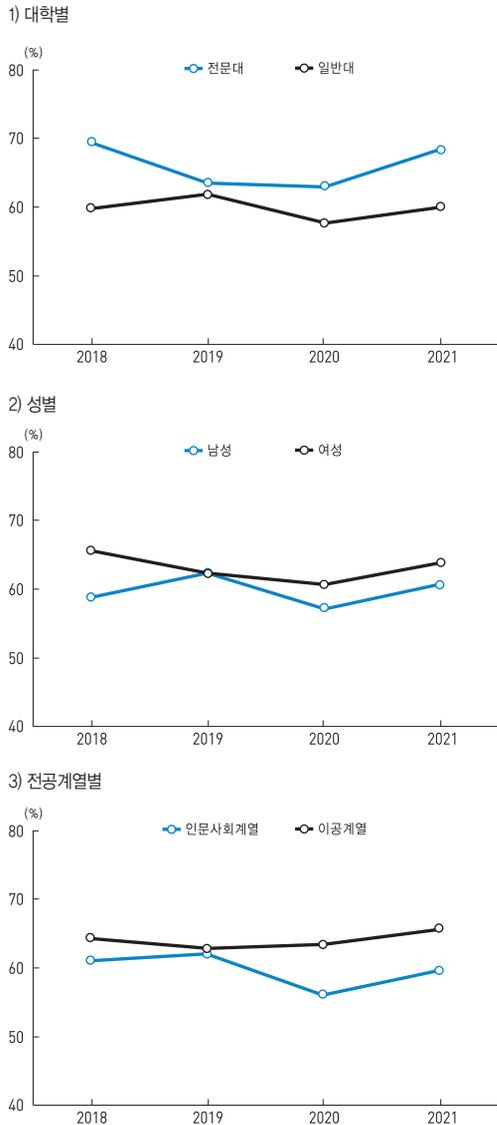
주: 1) 교육대학교와 산업대학은 일반대학, 기능대학은 전문대학으로 포함됨.  
 2) 자료 기준일은 당해연도 4월 1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각 연도.

### 코로나19와 취업의 양적 측면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대졸자의 취업이 힘들어졌다(그림 IV-20).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2월 또는 8월 졸업생의 고용률(2019년 10월 기준)이 전문대 63.5%, 일반대

1)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은 학점 이수 등 각 대학이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졸업하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료생,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하여 수업 연한을 초과한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림 IV-20] 대졸자의 고용률 변화, 2018-2021



주: 1) 고용률=(취업자÷만 15세 이상 인구)×100.  
 2)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함.  
 3) 전문대 및 일반대 졸업자는 대학원 중퇴자가 제외된 수치임.  
 4) 전공계열은 2018년에는 인문·사회·예술·체육·교육계열을 인문사회계열로, 자연·공학·의약계열을 이공계열로 분류하였고, 2019년 이후부터는 교육,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정보학, 경영, 행정·법학, 복지, 서비스 전공을 인문사회계열로,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건설, 농림어업·수의학, 보건 전공을 이공계열로 분류함.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10월.

61.9%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2월 또는 8월 졸업생의 고용률(2020년 10월 기준)은 전문대 63.0%, 일반대 57.6%로 하락하였다.

일반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률이 4.3%p 하락하였으며, 2021년에도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반면 전문대의 경우 고용률이 0.5%p 하락에 그쳐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 않았고, 2021년 들어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거의 회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힘들어진 정도는 남성이 더 컸으며, 2021년 들어 여성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회복한 반면, 남성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공계열별로도 취업상황의 변화 양상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다. 이공계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반면,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고용률이 무려 6.1%p 하락하였고, 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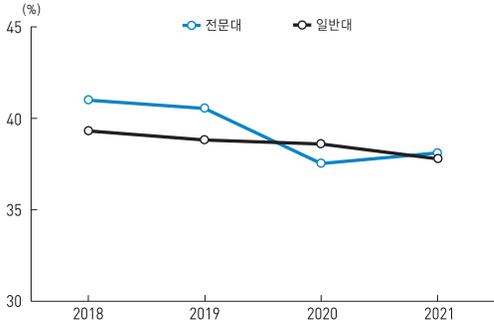
[그림 IV-21]에서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코로나19 이후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시간 감소 경향은 일반대보다는 전문대의 경우 더 두드러진다.

또한 성별이나 전공계열과 무관하게 취업자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의 감소 정도는 남자보다 여자,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이공계열 졸업생의 경우 더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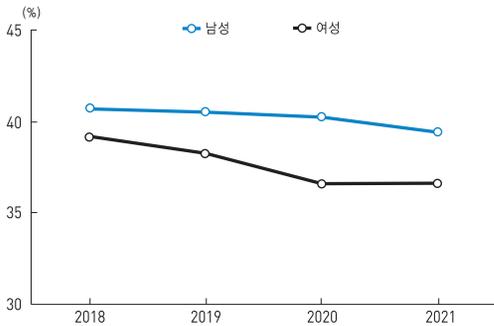


[그림 IV-21] 대졸자의 주당 근로시간 변화, 201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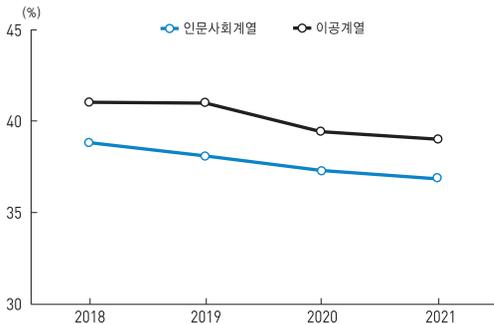
1) 대학별



2) 성별



3) 전공계열별



주: 1) 주당 근로시간은 수입을 목적으로 실제로 일한 시간(초과근무 포함)을 의미함.

2) 전문대 및 일반대 졸업자는 대학원 중퇴자가 제외된 수치임.

3) 전공계열은 2018년에는 인문·사회, 예술·체육, 교육계열을 인문사회계열로, 자연, 공학, 의약계열을 이공계열로 분류하였고, 2019년 이후부터는 교육,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정보학, 경영, 행정·법학, 복지, 서비스 전공을 인문사회계열로,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건설, 농림어업·수의학, 보건 전공을 이공계열로 분류함.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10월.

코로나19와 취업의 질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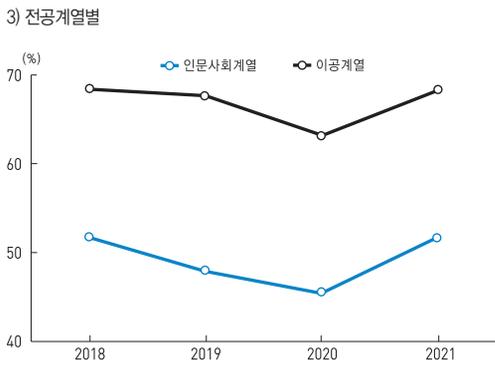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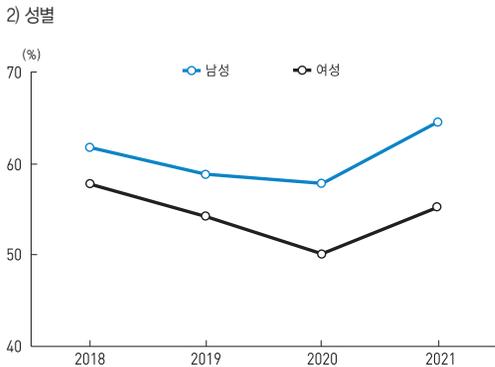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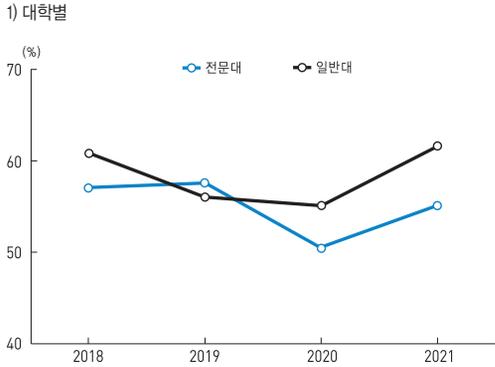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졸업생 중 상용직이면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일반대와 전문대 졸업생 모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하락했다가 2021년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IV-22).

다만 일반대의 경우 하락 폭이 1.0%p로 크지 않고 2021년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전문대의 경우 일반대에 비해 2020년의 하락 폭이 7.1%p로 크고, 2021년 들어서도 2019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다는 점이 다르다.

성별 및 전공계열별로 보면, 성별과 전공계열을 불문하고 2020년 정규직 비율이 2019년에 비해 감소했다가 2021년에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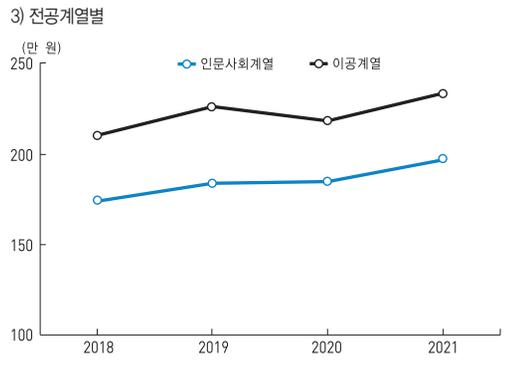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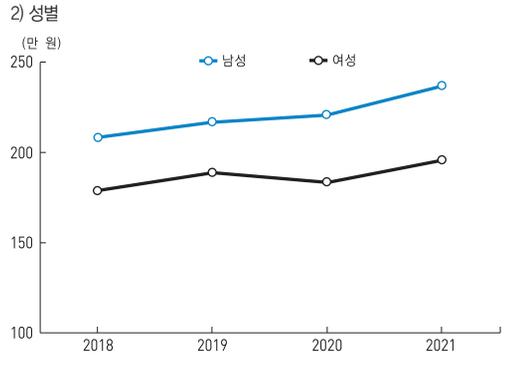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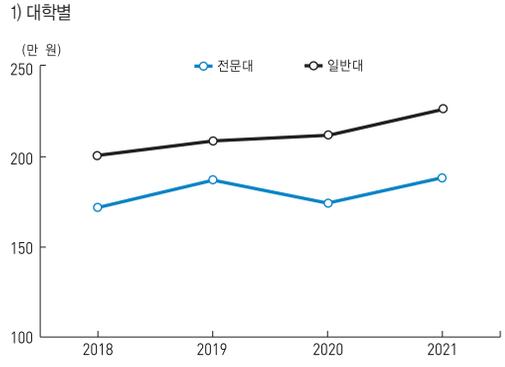
[그림 IV-23]의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변화를 보면, 임금 상승 폭이 과거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거나 오히려 임금수준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2020년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된다. 특히 일반대졸자의 경우 2019년 208.2만 원에서 2020년 211.5만 원으로 임금이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 전문대졸자의 경우 2019년 186.8만 원에서 2020년 174.3만 원으로 오히려 임금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일반대졸자보다 전문대졸자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규직 비

[그림 IV-22] 대출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변화, 2018-2021



주: 1) 전문대 및 일반대 졸업자는 대학원 중퇴자가 제외된 수치임.  
 2) 전공계열은 2018년에는 인문·사회, 예술·체육, 교육계열을 인문사회계열로, 자연, 공학, 의약계열을 이공계열로 분류하였고, 2019년 이후부터는 교육,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정보학, 경영, 행정·법학, 복지, 서비스 전공을 인문사회계열로,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건설, 농림어업·수의학, 보건 전공을 이공계열로 분류함.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10월.

[그림 IV-23] 대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변화, 2018-2021



주: 1) 월평균 임금은 세금공제전 월평균 총수령액 기준이며, 각종 상여금 및 현물 등을 포함한 금액임.  
 2) 전문대 및 일반대 졸업자는 대학원 중퇴자가 제외된 수치임.  
 3) 전공계열은 2018년에는 인문·사회, 예술·체육, 교육계열을 인문사회계열로, 자연, 공학, 의약계열을 이공계열로 분류하였고, 2019년 이후부터는 교육,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정보학, 경영, 행정·법학, 복지, 서비스 전공을 인문사회계열로,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건설, 농림어업·수의학, 보건 전공을 이공계열로 분류함.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10월.



율의 감소폭이나 근로시간 감소폭이 전문대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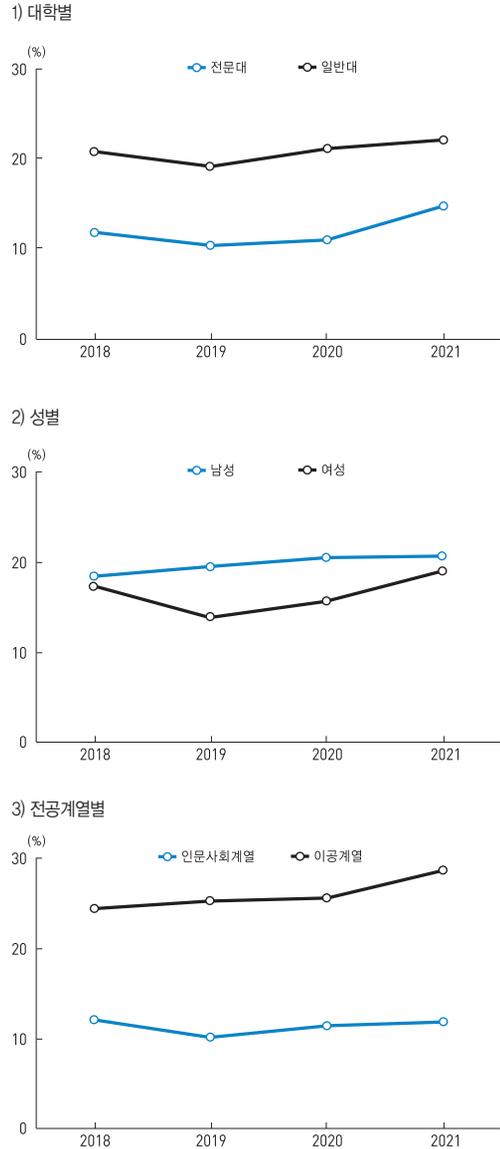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임금의 하락 양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았다. 일반대졸자의 경우 2021년에 상당한 임금 상승이 이루어졌고, 전문대졸자의 경우에도 2021년의 월평균 임금을 보면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된다.

성별로 보면, 여성 대졸자의 임금은 2019년 188.8만 원에서 2020년 183.4만 원으로 하락했지만, 남성 대졸자의 임금은 216.8만 원에서 220.8만 원으로 소폭이나마 상승하였다. 계열별로는 이공계열 대졸자만 226.2만 원에서 218.2만 원으로 임금이 하락하였고, 인문사회계열 대졸자의 임금은 183.8만 원에서 184.9만 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전공계열별 비교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인 계층, 즉 일반대졸자보다는 전문대졸자, 남성보다는 여성 졸업자의 정규직 비율 감소와 임금 감소폭이 더 컸다는 점에서,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그림 IV-24]의 대졸 임금근로자 중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의 비중을 보면, 2020년 이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결과, 이들 기업의 청년 취업자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그림 IV-24] 대졸 임금근로자 중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비율 변화, 2018-2021



주: 1) 전문대 및 일반대 졸업자는 대학원 중퇴자가 제외된 수치임.  
 2) 전공계열은 2018년에는 인문·사회, 예술·체육, 교육계열을 인문사회계열로, 자연·공학, 의약계열을 이공계열로 분류하였고, 2019년 이후부터는 교육,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정보학, 경영, 행정·법학, 복지, 서비스 전공을 인문사회계열로,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건설, 농림어업·수의학, 보건 전공을 이공계열로 분류함.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10월.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2019년과 비교할 때 2021년에는 중소기업의 대졸 임금근로자 취업자 수는 약 1만 5천 명 감소한 반면,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대졸 임금근로자 취업자 수는 약 6천 4백 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대와 일반대, 성별, 전공계열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 맺음말

코로나19는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특정 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 「신규대졸자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함선유 외. 2021.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의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